

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 사전 주문 해외 출발편으로 확대

등록 2026.06.01 08:45:40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47-8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대한항공이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는 항공기 출발 전에 원하는 메뉴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국제선 일부 노선 프레스티지석에 처음 도입된 후, 2024년 10월부터 한국 출발 국제선 일등석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해외 출발 장거리 일등석 승객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 노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애틀랜타·보스턴·시카고·워싱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9개 노선이다.

사전 주문 메뉴는 오는 6월22일 출발편부터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항공기 출발 21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메뉴를 예약하면 된다.

첫 번째 식사와 두 번째 식사 모두 사전 선택이 가능하며, 각 식사의 주요리(한식·양식·채식)를 먼저 고른 뒤 요리와 수프를 순서대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는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유료 기내식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내식을 미리 확정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식재료 수급과 기내 재고 관리가 용이해져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출발편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해외 출발편으로 확대해 일등석 승객에게 보다 개인화된 프리미엄 다이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 만족도 제고와 기내식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